

전남 중부권

“공무원도 기업처럼 성과급 주자”

‘재정 인센티브’ 도입 여론... 시·군 보조금 횡령 예방 효과도

장흥군 무산김 국비 보조금 관련 공무원 구속 파문

일선 지자체가 각종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금횡령 사건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제 방식인 성과급주의 ‘재정 인센티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전남지역 시·군에 따르면 일선 지자체의 각종 보조금 사업은 국비와 도비의 지원으로 추진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9.4%에 불과한 장흥

군의 경우 1년 전액 예산 3300억원 가운데 자체 수입은 지방세(84억원)와 세외수입(174억원) 등 258억원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나머지 예산은 국·도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고 이렇다 보니 지역 현안사업들이 보조금 지원으로 추진되는 사례가 많다.

대표적인 사례가 장흥지역 특산물로 전국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무산

(無酸) 김’ 육성사업이다.

장흥군은 무산김 주식회사에 국비 보조금(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군청 관련 공무원들이 지난달 공금 횡령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됐다.

이번 사건은 군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관련 부서 공무원들은 사업추진을 위해 중앙 부처를 자주 들락거릴 수밖에 없는 실정에서 비롯됐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장흥군 관련 공무원들은 무산김 주식회사를 설립하기까지 수십억 차려나 본인 돈을 써가며 중앙부처를 방문, 국비(20여 억원) 확보에 노력했다. 이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이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편법을 통해 2000여 만원에 이르는 공금을 횡령, 그동안 썼던 소요경비를 충당할 것이 이번 사건의 배경이라는 것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일선 지자체들이 중앙부처 국비 확보에 따른 별도의 부대비 성격(재정 인센티브) 소예산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이 같은 탈·편법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기업의 성과를 형태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홍=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고구마캐기 재밌어요

영암지역 소년·소녀 가장들이 지난 10일 현대삼호중공업(대표이사 사장 오병욱) 봉사서를 ‘한올타리’(회장 권상안) 회원들과 함께 영암군 삼호읍 신한리 한정마을에서 고구마캐기 체험을 하고 있다. ‘한올타리’는 지역의 소년·소녀가장을 후원하기 위해 지난 2001년 결성됐다.

/영암=문병성기자 moon@

강진 군민들도 탐진댐 물 마신다

내년 9월부터...북산 정수장 배수관로 설치

내년 9월경부터 강진 군민들도 탐진댐 물을 마시게 될 전망이다.

11일 강진군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 9월부터는 강진읍 북산 정수장을 통해 매일 4만여명의 군민이 탐진댐 맑은 물을 마실 수 있게 된다.

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생활용수 수요와 탐진강 하류의 수질악화 등에 따라 안정적인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광역상수도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군은 강진 호수공원에서 강진읍 배수지까지 2.2km 구간만 관로를 신규 설치하고, 기존 배수관로를 이용해 탐진댐 물을 주민들에게 공급한다. 수도요금도 종전 가격대로 유지된다.

이번 사업으로 그동안 수돗물 사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주민에게 원활한 수돗물 공급과 함께 오염원이 없는 탐진댐의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또 식수난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군은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6억9000여만원의 사업비를 2013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

공사는 2013년 1월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8월 시험가동에 들어가 9월 준공과 함께 연간 178만 규모의 광역 상수도를 공급받게 된다.

강진원 군수는 “아파트 신축에 따른 수돗물 사용량 증가와 재해시 전 기공급 중단으로 인한 단수 예방은 물론 마량 등 근내 농공단지와 산업단지 등에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지역경제에도 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i@



담양중 토셀 인증평가 93명 응시

드림스쿨 방과후 프로그램 학습효과 ‘톡톡’

담양중학교(교장 김성희)가 학생들의 영어실력 향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담양중은 지난 1년동안 ‘드림스쿨(Dream School) 방과후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해 온 EBS TOSEL(토셀·영어 인증시험) 인증평가를 지난 10일 실시했다. (사진) 이날 시험에는 재학생 93명이 응시했다.

이번 평가는 EBS 국제 TOSEL 위원회에서 초급(Starter)에서 고급(Advanced)까지 6단계 수준으로 나뉘 1년에 7회 실시하고 있는 영어능력 인증시험이다.

김성희 교장은 “이번 인증평가는 TOSEL 인증평가에 적응력을 높이고, 자신의 영어능력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담양=정재근기자 jjg@

나주에 친환경 농산물 종합물류센터

호남권 최초 2015년까지 288억 들여 완공

1만7000㎡ 부지 집배송장·저온 저장고 등

오는 2015년 나주시에 호남권 최초로 친환경 농산물 종합 물류센터가 들어선다.

11일 나주시에 따르면 오는 2015년까지 288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친환경 농산물 종합 물류센터가 나주시 산포면에 건립된다.

친환경농산물 종합 물류센터는 전국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의 50%를 차지하는 전남지역을 거점으로 광주지역 등 호남권을 아우르는 광역 거점

물류센터 역할을 하게 된다.

시는 공모절차를 통해 산포면 내기리 지역을 최종 부지로 확정하고, 친환경 농산물 전문가 20여명과 최근 운영계획 및 건설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가졌다.

종합 물류센터는 건축면적 1만 7000㎡에 2015년까지 28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집·배송장, 예냉시설, 저온 저장고, 학교급식을 위한 전처리 포장실 및 안정성 검사센터 등을

갖추게 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농림수산물품부는 장기적으로 전국 3개 권역에 전용 물류센터 건립을 구상했는데 나주군이 가운데 한곳으로 선정됐다”며 “친환경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판매 위탁할 수 있는 유통구조를 갖춰서 생산능력은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고, 소비자는 유통비용 절감으로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총 902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장성을 유타리 일원 부지 9만9000㎡에 연면적 4만 7380㎡ 규모의 ‘농협 호남권물류센터’를 2015년 상반기 완공목표로 건립 중이다. /나주=송영희기자 ycon@

전 북

융·복합 플라즈마연구센터

군산 국가산단에 문 열었다

국내 유일...394억 투입

융·복합 플라즈마(Plasma) 연구센터가 최근 군산시 국가산단입지에 문을 열었다.

국내 유일의 플라즈마 국책연구기관인 국가 핵융합연구소는 총 394억 원을 군산 제2국가산단에 5만여㎡ 부지에 연구동과 기숙사, 특수설비 등을 갖춘 플라즈마 연구센터를 개소했다.

연구센터에는 대전 핵융합연구소에 있던 50여 명의 연구 인력이 이전·상주하며, 플라즈마 파생 기술의 실

용화를 위한 연구와 관련 인력 양성에 나선다.

플라즈마 연구센터에 이어 이를 상용화하기 위한 핵융합연구소의 제2캠퍼스 등도 이 일대에 들어설 전망이다.

한편 플라즈마는 고체, 액체, 기체와 구분되는 물질의 제4상태로 이온화된 기체 상태를 의미한다. 플라즈마 응용기술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에너지, 환경, 의료, 신소재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기반 기술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noqusu@



4개 종단 순례음악회

기독교·천주교·불교·원불교 등 4개 종단 성직자들이 지난 10일 전주시 치명자산에서 열린 순례 음악회에서 정음스님의 지휘 아래 합창을 하고 있다. /연희뉴스

서남권 공립화장시설 무산 위기

정음시의회 부지 매입안 2차례 부결...주민들도 반대

정음시와 고창군, 부안군이 함께 추진하는 공립 화장(火葬)시설 건립이 무산될 위기에 몰렸다. 사업을 주도하는 정음시가 사업 추진을 위해 정음시의회에 부지매입안을 제출했으나 2차례나 부결됐고, 해당지역 주민들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음시의회(의장 김승범)는 지난 8월 18회 본회의에서 정음시가 다시 제출한 화장장 부지 매입을 위한 ‘공공시설 관리계획 승인안’을 부결시켰다. 이 안은 의결 정적수인 과반을 얻지 못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달 열린 178회 임시회에서 지난달 열린 178회 임시회에서 안건을 상정조차 않았고,

179회 임시회에서는 부결시켰다. 시는 사업추진 의지를 보이며 이번 본회의에 안건을 다시 제출했으나 토론회 없이 표결에 붙여져 재차 부결됨으로써 공립화장장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앞서 3개 시·군은 지난 7월 갑곡면 통서리 1만2000여㎡에 화장장 3기, 자연장지, 봉안시설 등 화장시설을 88억원을 들여 짓고 주민 배려사업도 해주시기로 발표했다. 당시 이 사업은 혐오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지역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중복투자도 인

그러나 화장시설 건립사업은 부지 인근 일부 주민의 반대는 물론 시의회의 2차례 연속 안건 부결이라는 암초에 부딪히면서 좌초 위기를 맞았다.

정음시는 시의회 부결 이후 성명서를 통해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협력하고 공조해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공립 화장시설이 순조롭게 완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음시와 고창, 부안군은 당초 총사업비 135억원을 들여 정음시 갑곡면 일원에 ‘서남권 광역 공립화장시설’을 오는 2014년 6월말 완공할 계획이었다. /정음=박기섭기자 parkks@

단 신

군산 타타대우상용차 ‘나눔 국민대상’ 장관 표창

타타대우상용차(주)(대표이사 김관규)가 보건복지부 주최·대한민국 나눔 국민대상위원회 주관 ‘제1회 대한민국 나눔 국민대상’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타타대우상용차(주)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소년들

을 위한 장학금 조성 및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급여의 일정액 기부하는 나눔캠페인을 펼쳐 높은 평가를 받았다. 타타대우상용차(주) 이영규 이사는 “소외된 이웃과 지역사회에 나눔 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남원시,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남원시는 자동차세 체납 근절을 위해 이달 말까지 ‘체납차량 특별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한다.

시는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고 차량탐색 영상인식 시스템을 이용, 집중적인 영치활동을 전개한다.

13일에는 5개조 30명으로 합동기동 징수반을 편성해 시내권을 중심으로 야간에도 번호판 영치 활동을 한다.

남원시는 납부의사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 등으로 자진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정음, 무료 암검진 대상자 조기검진 당부

정음시보건소가 무료 암검진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빠짐없는 조기 검진을 당부하고 나섰다.

시 보건소는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 치료토록함으로써 암 사망을 줄이고, 암 사전예방을 위해 무료 암 검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무료 암검진 대상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주민등록 주소지 및 주민등록번호가 2011년 11월 보철료 부과기준 하위 50%(지역가입자 7만8000원·직장가입자 7만3000원)인 주민이다. /정음=박기섭기자 parkks@

순창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52억 투입

순창군이 군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군은 총사업비 52억1100만원을 들여 ▲주택개량 70호 ▲지붕개량 113호 ▲민집정비 72호 ▲

취약계층 주택개보수 130호 ▲나눔 희망의 집 251호 등 총 5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순창군의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총636호 사업대상 가운데 435호가 완료됐고, 52호가 공사 중이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김제시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단’ 33명 위촉

김제시는 최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여성 친화도시’ 서포터즈단 위촉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서포터즈단 위촉장 전달, 서포터즈단 선서, ‘여성 친화도시’ 시민참여단 활성화방안에 대한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서포터즈단은 김제시의 정책형성

발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와 김제시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해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을 결의했다. 김제시는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공동도시, 김제’를 만들기 위해 지난날 공모와 추천을 통해 서포터즈단 33명을 선발했다. /김제=강철수기자 knews@

/김제=강철수기자 knews@